

사육비율 증가한 반면 유통부문은 취약

□ 취재/김재서 기자

'90년대 이후 가금육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질개선에 나선 관련업체는 육계계열화사업을 적극 도입하였고 정부 역시 '98년에만 육계계열화에 373억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한국 육계산업을 활성화하여 생산 및 유통·소비를 이끌어가야 할 계열업체는 생산량 증가와 이에 따른 유통 구조의 미비 등으로 기존 업체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생산과잉이라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정된 자체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잉생산은 출혈경쟁을 가져올 수 밖에 없으며 부실경영의 큰 원

인을 제공했다고 보여진다.

전체 육계 물량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계열업체가 이처럼 안정된 산업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과잉생산과 덩핑출하 등으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금융부담 등으로 계속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대연식품의 대삼마니커 인수와 축협이 육계계열화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변화가 예상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1. 계열업체 현황

현재 국내 육계 계열업체는 하림과 대연, TS해마로 등의 업체와 충북 및 전북양계협동

조합을 포함 약 12개로 전체 육계 사육물량의 약 60%, 도계물량은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육계 농가 중 계약사육 농가수는 '98년 6월 현재 약 1,300여 농가로 농림부가 조사한 '98년 6월말 육계사육 농가 2,130가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중 국내 최대 육계계열업체인 하림의 계약사육농가수가 약 550여 농가로 전체 육계농가의 약 26%, 계약사육 농가의 약 40%를 차지하여 국내 육계 사육수수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외, 대연식품이 170여 농가, TS해마로, 해표푸드, 체리부로, 충북양계축협 등이 110~120여 농가, 한일 80여 농가, 전북양

계축협, 우인 등이 약 40~60여 농가들이 계약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계열업체 농가수는 계열업체 사정과 시기에 따라 수시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대연식품의 대상마시커 인수로 대연의 년평균 농가수는 약 170농가로 육계계열화는 물론 육계업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육계계열화업체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하림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약 1,700%, 자기자본 비율이 약 6%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계열업체의 문제점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IMF 경제위기 이후 '98년 상반기 전년 기준 민간소비 부문은 11.7%가 감소되었으며, '98년 1/4분기 GDP와 GNP 역시 5.3%, 6.4%가 감소되었다.

더욱이 제조업 평균가동율은 '95년 기준 전년동기 '97년 약 80%였던 것이 '98년 상반기에는 약 67%로 약 13% 정도 하락하여 경기 침체를 말

표1. 계열업체 현황

구분 계열업체	'97매출액 (백만원)	년평균 농가수	'98상반기 추정 계열 사육수수 (만수)	도계장 1일 처리능력 (만수 8시간 기준)	'98상반기 추정 도계수 (만수)	종업원
1	232,874	550	4,000	15	4,500	1,270명
2	48,812	110	750	10	700	220명
3	70,414	80	400	6	420	105명
4	31,078	120	420	6	700	120명
5	26,247	80	300	5	500	60명
6	50,524	120	550	5	650	205명
7	28,005	60	280	5	480	190명
8	19,176	40	210	3	240	61명
9	17,885	80	480	4	300	11명
10	16,000	65	410	5	430	44명

하여 주고 있는데 반해, 육계 계열화 업체의 도계장 가동율은 이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계약사육 물량외에 외부물량 비율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고 '98년 상반기의 육계계열화업체들의 도계물량은 약 1억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올해의 소비감소를 감안하면 점유율이 예년에 비하여 약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3. 계열업체의 가중되는 어려움

대부분의 계열업체가 기초 생산 부분인 사육농가와 도계장은 비교적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반면 이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통과 판매 능력 면에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이 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금융비용의 부담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동율로 인한 손실 등 고정 투자비 측면에서 적자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소비감소와 아울러 계열업체가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안정적인 판로를 장악하지 못함으로써 수급불균형이 초래되어 과잉생산 상태에 장기적으로 놓여 이로 인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잉생산은 결국 낙후된 도계장에서 처리된 계육과

표2. 계열업체 운영 현황

계열업체	초 생 추		사 료	상품 및 체인점	기공 연구팀 현황
	자체생산 비율(추정)	품 종			
하 립	99%	모든 품종	하림	하림 명가, 장작구이 맛 치킨 등 80가지	연구개발팀
대상(전)	100%	에이, 하이, 로스	대상 외3사	BBQ, 스모크 치킨 등	개발팀
T S	0%	아바	대한	파파이스 등	파파이스 상품기획부
체리부르	80%	로스, 아바	6개 회사	스모크치킨	제품연구팀
한 일	90%	아바	한일	한일 닭고기 등	관련부서
해표푸드	50%	삼화로스	신동방	부분육 등 90가지 가공품 10가지	개발팀
대 연	90%	에이	4개 회사	새물내 치킨, 닭불까스 등	개발팀
우 인	0%	로스, 아바, 에이	2개 회사	우인 닭고기 등	관련부서
총 북	50%	아바, 로스	4개 회사	청정계 등	관련부서
전 북	0%	에이, 로스, 하바드, 아바	축협	계림마을	제품개발실

* 주 : 에이-에이비안, 아바-아바에이커, 하이-하이브로

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또다른 요인이 되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판매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계열업체 도계장에서의 비용과 기타 도계장에서의 처리 비용은 수당 100원 이상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손실이 결코 적지 않으며 업계에서 도계육을 판매하는 것보다 생닭을 유통시키는 것이 더 이윤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최신 설비에서 위생적인 닭고기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차별화된 가격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투자에 의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설투자비와 산물의 부가가치를 인정받기에는 육계 유통의 현실이 위생계육에 대해 불합리하고 생산과잉 등의 이유로 그러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계열화의 특성상 생산

비를 낮추기 위해 대부분 시설이 대규모이며 이는 중복 투자와 시설의 효율성 측면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영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유통개선 및 판매전략과 함께 경영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4. 병아리 및 사료 수급

병아리는 계열업체가 자체 부화장을 가지고 일괄 공급하는 경우와 일반부화장과의 계약을 통하여 전량 조달하거나 일부 수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들어 종계부화 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체조달 비율이 약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병아리 계종의 경우 에이비안, 아바에이커, 로스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계열업체가 자체 부화장을 경영하고 있다. 사료의 수급은 하림, 대상(전), TS해마로, 한일, 해표푸드서비스 등은 사료회사와 직접 계약 조건을 조정하여 일괄 공급토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계열업체의 경우에는 지역과 거리 등의 사정에 따라 대개 4개 회사 정도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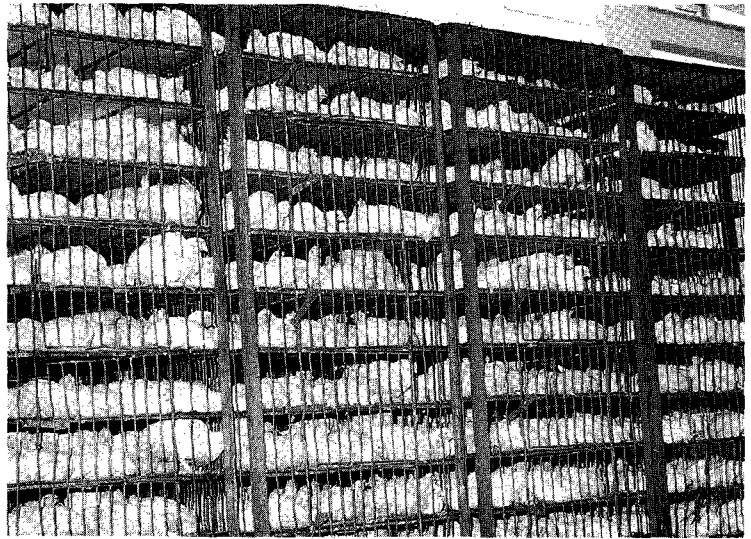
5. 상품개발 및 홍보

대소비자 접근과 소비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가공상품의 개발은 대부분의 대형 계열업체의 경우 제품개발 연구인원이 4~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규모 계열업체의 경우 소극적이어서 소비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가공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대부분의 계열업체가 생닭이나 일부 부분육 등의 유통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자 홍보에 있어서는 하림과 TS해마로 등이 적극적인 TV광고 등을 하고 있으며 경영의 어려움과 함께 자체가공 브랜드의 유통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최근 동향

생산자 조직인 축협이 육계 계열화 사업은 현재 음성 도계장이 8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며 새로운 사육기반을 양산하기 보다는 기존 충북과 전북양계축협 등의 계약농가들을 흡수 운영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다소



△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과 소비확대가 필요하다.

생산과잉의 우려를 씻어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유사계열업체들이 일시적으로 높은 사육수수료의 현금결제로 사육비율이 확장되고 있는데 때로는 일부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문제가 되어 오고 있다.

7. 소비확대와 물량조절

국제곡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의 배경속에서 90% 이상이 계열화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미국산 냉동 닭고기의 '98년 8월 수입통관가격은 1kg에 1.03불대이고, 올해 평균은

1.12불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육계업체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과잉생산은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있고 시설효율성을 고려하여 볼 때 다각적인 소비확대 방안과 특수성을 인정받아 부가가치를 높인 가공상품의 개발 및 수출 등을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백색육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새로운 소비자 접근방식을 찾는 노력들이 업체들의 지구노력과 함께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양계**